

# 의정부소방서,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본격 시행

소방신문 | 승인 2024.11.11 15:26



의정부소방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대형화재 재발 방지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정부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총 1,084건 중 겨울철이 27%(295건)으로 계절별 화재 발생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, 겨울철 화재 건수 및 인명피해는 주택(단독, 공동)에서 다수 발생하였다.

겨울철 화재 원인으로서는 부주의가 48.8%(529건)으로 가장 높았으며, 전기적 요인(27%), 기계적요인(13%)순으로 나타났다.

이에 의정부소방서는 난방기구와 화기 사용이 급증하고 실내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대형화재 재발방지 및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.

주요 대책으로는 ▲인명피해 우려대상 자율안전능력 확보 ▲취약계층 화재안전 확보 ▲생활밀착형 화재예방 및 안전활동 ▲대형 화재사고 대비 체계마련 등이다.

문태웅 의정부소방서장은“이번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”라며,“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”고 전했다.



**소방신문** sobangnews@empas.com

---

저작권자 © 소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